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교회 주일예배
열왕기하 14:5-6
2025 년 8 월 31 일 오전 11 시

순종은 승리, 교만은 패망

< 주여 도우소서 >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실패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입니다. 승리와 성취의 순간은 가장 기쁜 순간이지만 동시에 교만이라는 큰 유혹이 찾아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승진이나 합격, 사업의 성공 같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될 때 하나님을 잊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된 줄 착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 장은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 왕의 삶을 통해 ‘순종은 승리로,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지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① 순종이 가져오는 승리, ② 교만이 부르는 패망, ③ 감사로 교만을 이기는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북왕국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와 함께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을 쏘는 시점에 남왕국에서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조 처음으로 왕이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대하 24:25). 남왕국의 왕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임금을 죽인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모반의 이유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가문을 멸절한 것 때문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역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 이유일 뿐입니다.

모반자들은 레위 지파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렛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대하 24:26). 반역자들은 암몬과 모압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로 정권에서 소외된 세력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에

불만을 가진 세력을 규합하여 역모를 꾸몄지만, 왕위 찬탈이나 새로운 왕조 건설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이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왕하 14:1).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허나 아마샤 왕은 무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적들을 처단하지 못하였습니다.

1.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승리

또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스가랴와 그 형제들을 죽인 선왕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새왕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적들은 죽지 않고 살아 남아 계속하여 궁궐 출입을 하며 고개를 뺏뺏이 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마샤 왕이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후에 처형당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5 절). 허나 연좌제를 적용하여 가족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6 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권 강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역모를 일으킨 자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역모를 꾸미면 아들, 손자는 물론이고 처가와 외가까지 모두 멸문지화를 시킨다고 해야 쉽게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헌데 아마샤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반역자만 죽이고 그 아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마샤는 승리를 거둡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욥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왕하 14:7).

아마샤가 승리를 거둔 상대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다윗 왕 때에 유다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샤의 증조할아버지인 여호람 왕 때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마샤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다시 복속시키고, 북왕국 열 지파를 다시 유다에 편입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거둔 역사적 장소인 사해 남쪽 소금 골짜기에서 아마샤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정복하였습니다. 바위란 뜻의 셀라는 후에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가 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도 바위란 뜻입니다. 페트라는 지형적으로 정복이 매우 어려운 도시입니다. 페트라는 폭이 1~2 미터 밖에 되지 않는 좁은 길이 수 킬로미터 이어져 있는 협곡으로만 진입할 수 있어 소수의 병력으로도 큰 군대를 막아낼 수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정복왕 알렉산더도 페트라만큼은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헌데 아마샤는 알렉산더 대왕도 정복하지 못한 페트라, 셀라를 정복하고 이름을 욥드엘로 개명하였습니다. 욥드엘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마샤 왕은 셀라를 욥드엘로 바꾸어 부름으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후 아마샤는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북쪽 열 지파를 유다에 편입시키기 위해 북왕국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왕하 14:8).

헌데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아마샤 왕에게 우화로 화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9 절). 가시나무와 백향목은 비교 불가한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들짐승에게도 짓밟히지만, 백향목은 30 미터까지 자라는 거목입니다. 헌데 이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대등한 줄 알고 목에 힘을 주고 우쭐대다가 그만 신세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2. 교만할 때 임하는 패배

우화를 통해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남왕국의 왕 아마샤를 가시나무에 비유하며 괜히 까불다가는 다친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집에나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꾀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10 절). 현대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벤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11 절).

결국 유다의 영토인 벤세메스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남왕국의 참패였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12 절). 남왕국 군대는 왕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벤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13 절). 그래서 다윗 왕조 처음으로 왕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이 유린되었습니다. 북왕국 군대는 벤세메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 에브라임 문은 이름 그대로 에브라임이 있는 북쪽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헐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을 헐었다는 뜻입니다. 북쪽 성벽 안쪽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쪽 성벽이 무너지면 곧바로 성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북쪽 성벽을 헐고 성전으로 진입하여 성전의 공간을 털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14 절). 북왕국 군대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로써 북왕국의 요아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포로로 잡은 아마샤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대신 아마샤가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사람을 볼모로 잡아 갔습니다. 아마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아마샤 왕을 뒤이어 왕이 된 아사랴의 나이가 16 세로 어리다는 것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 때에 그의 나이가 십육 세라”(21 절). 여러분, 아마샤가 죽을 때 나이가 54 세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2 절). 그런데도 16 세에 불과한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은 다름아닌 바로 형들이 모두 사마리아에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3 절). 그런데 포로로 잡히는 수치를 겪고, 성벽이 무너져 성전이 약탈당하며, 자식들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패배하였습니까? 남왕국 군대가 북왕국 군대보다 못해서 패배하였을까요? 남왕국 군대는 30 만 대군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삼십만 명을 얻고”(대하 25:5).

아마샤의 군대는 북왕국 군대보다 숫적 우세를 가지고 있었고, 페트라를 정복함으로 사기도 충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정 전쟁이 아니라 홈 그라운드에서 싸운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아마샤는 패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마샤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패망을 부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한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다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연약했을 때는 겸손했는데, 강성해진 후에 교만에 빠집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했는데, 재물을 얻은 후에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했는데,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 교만합니다.

3. 감사로 교만을 이기자

영적 교만도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겸손했는데, 직분자가 된 후에 교만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는 겸손했는데, 은사를 받은 후에는 교만에 빠져 형제 자매를 무시합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겸손했는데, 성경 지식이 많아진 후에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살며시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초장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패배한 후에 마음의 교만을 뉘우칠 수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교만 때문에 내 가족과 주변 사람이 함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때 교만은 우리 마음 속에 물밀듯 밀려 들어 옵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무찌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셀라의 이름을 욥드엘이라고 고친 내용만 나오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듭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대하 25:14).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도 구하지 못한 에돔의 신께 경배하고 분향하며 복을 빌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현대 오늘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바알이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재물, 명예, 인정 등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대하 25:15). 선지자는 왕을 책망합니다.

현대 벌써 교만에 사로잡힌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대하 25:16). 아마샤 왕은 선지자에게 ‘당신이 뭘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입을 닥쳐라. 맞아죽고 싶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아마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바로 멸망입니다. 그 예언대로 아마샤는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왕하 14:19). 예루살렘에서 제 명에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하다가 반란군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할 때 패배와 멸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승리와 성공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감사할 때, 그 마음이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샤처럼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

순종은 승리, 교만은 패망(왕하 14:5-6)